이지원 / Jiwon Lee 둘 / Dul	Media Artist Sound Designer
	Singer-Songwriter

둘(이지원 / 2000년 서울 생)은 20세기와 21세기, 프리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환점을 경험하며 시대의 경계에서 재정의되고 변화하는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소리와 빛을 기반의 뉴미디어 아트/다원예술로 풀어낸다. 현시대의 기술을 통해 미래의 문화적 양상을 예측하고 구현하는 프로젝트인 "신생"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생(A Newborn)" 프로젝트는 현재 '공간'과 '언어'에 초점을 맞춘 작품 <신생공(A Newborn Space)>, <신생어(A Newborn Language)>의 연작들이 작업 중에 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현시대의 기술을 이용해 소리만으로 공간 이면의 가능성과 새로운 공간의 모습을 구현하는 <신생공〉과 평면적 문자, 고정된 발화 등 기존 언어의 틀에서 해방된 언어를 구현하는 <신생어〉를 작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변화를 위한 새로운 문화적 움직임을 일으키고자 한다. 프로젝트 "신생"의 일환으로 개인전 <신생어 : 옹알이>(2023, 평화문화진지)와 개인전 <신생;>(2023, Hall1)을 발표했으며 그 이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레지던시 작가로 활동하며 DMZ 생태계를 본딴 가상 생태계 속의 먹이그물 구조와 균형을 데이터 소리화(Data Sonification), 입체음향, 조명으로 표현한 작품 <어드메>(2020,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제작해 전시 <<바이오필리아 : 흙 한줌의 우주>>에서 발표했다.



	<u>학력 / Education</u>		참여 전시 / Participated Exhibitions
2024	서강대학교 아트앤테크놀러지 전공	2024	나의 여름 하늘 / 서울 시민청 소리갤러리 / 서울 / 김추수 개인전,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 선정작 / 영상 및 인터렉션 개발
2024	수상 및 선정 / Awards & Grants 천만아트포영 입선 / 천만장학회	2023	들리지 않게 들려주고 싶은 말 / 공간 형 / 서울 / 김추수 개인전,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 선정작 / 프로그래밍 & 엔지니어링 참여
2024	ONSO Artist Open Call 선정 / 정몽구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다원분야 선정 / 서울문화재단	2023	/ 3D 오브제 제작 게임과 예술 : 환상의 전조 中 오랑 /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창작센터 / 대전 / 2020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 프로젝트
2023 2023	청년예술가S 선정 / ^{부천문화재단} 음악.사운드아트 특화사업 선정 / 문래예술공장		/ 사운드 디자인 및 피지컬 컴퓨팅 상업 전시 / Commercial Exhibitions
	경력 / Work Experience	2024	
2023	평화문화진지 / 입주작가 참여 프로젝트 2023 평화문화진지 6기 입주작가 결과 보고전 <<신생어 : 옹알이>>	2020	피로 물든 역사 전展 / 넷플릿스 '킹덤' 전시회 / 사운드 디자인(Stereo, Quadraphonic) / 송원예술센터 / 서울
2020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_R Creators / 레지던시 작가 참여 프로젝트 2020 ACC_R 레지던시 결과 전시 <<바이오필리아 - 흙 한줌의 우주>>		영화 / Movie
2020	Seoul Open Media(권병준 작가 Lab) / 크리에이티브팀 참여 프로젝트 '기담', 가늘게 굽은 이야기' 세번째 프로젝트 <클럽 골든 플라워> / 조명 디자인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메타 퍼포먼스 : 미래극장> / 사운드 디자인	2023	
	국립현대 무용단 <친하게 지내자> / 로봇 부품 디자인 모스크바국제도서전 '김초엽' 관내분실을 위한 로봇 변주곡 / 오디오 에디팅 및 시그널 음악 작곡 '여행의 새발견' / Unfold X <풍경 그리고 풍경> / 부품 디자인 및 설치	2019	/제 3회 서울무용영화제(SeDaFF) 최우수작품상 2023 연회 / 단편영화 / 믹싱
2024	<u>개인전 / Solo Exhibitions</u> 신생공 / 온드림 소사이어티 / 서울 / 정몽구재단 Onso Artist Open Call 2024 선정장	2024 2023 2023	
2023 2023	신생; / Hall1 / 서울 /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다원분야 선정작 신생어: 옹알이 / 평화문화진지 / 서울 / 평화문화진지 6기 입주작가 결과 보고전	2023	207 / 단편영화 / 음악감독 2021 BADMATE / 단편영화 / 믹싱
2023 2021 2020 2020 2020	단체전 / Group Exhibitions 리본시티 中 신생공 / 복사골갤러리 / 부천시 / 2023 부천문화재단 차세대전문예술활동지원 청년예술가S 실연회 ViViD /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 서울 / 문래예술공장 음악,사운드아트 특화사업 선정작 바이오필리아 : 흙 한줌의 우주 中 어드메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광주광역시 / 2020ACC_R 레지던시 결과 보고전 Scale, Scanning 中 Architecture of DMZ / 성북예술창작터 / 서울 / 융합예술센터 신진예술가 창작 프로그램 선정작 Knitting Mind 中 Telltale Sign / 플레이스막3 / 서울 /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	2021 2021 2019 2019	이벽아전 / 음악 / 혜화동 1번지 / 서울 정신과 여의사 / 조명 디자인 / 서강대학교 메리홀 / 서울

Solo Exhibitions

신생; hall1, 2023

1 신생어 : 말 2023 가변 크기

단채널 영상, 8채널 입체음향 시스템, 인공지능 생성 사운드, 원형 LED Matrix 디스플레이

2 신생공 2023

2160. x 2500. x 1750. mm 인공지능 생성 영상, 8채널 입체음향 시스템, 생성형 앰비언스 사운드, 모니터, 알루미늄 프로파일, 수조, 물

> 3 텍스트 ㄱㄴㄷ 2023 410. x 200. x 380. mm 단채널 영상, 아날로그 TV

신생어: **옹알이** 평화문화진지, 2023

1 신생어 : 옹알이 2023 가변 크기

2채널 영상, 6채널 입체음향 시스템, 인공지능 생성 사운드, LED Matrix 디스플레이

2 텍스트 01 2023 410. x 200. x 380. mm 단채널 영상, 스테레오 사운드, 아날로그 TV

Group Exhibitions

리본시티 복사골갤러리, 2023

신생공 2023 2160. x 1100.x 1920. mm 인공지능 생성 영상, 생성형 앰비언스 사운드, 모니터, 알루미늄 프로파일, 수조, 물

VIVID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2021

VIVID 2021 가변 크기 8채널 입체음향 시스템, RNA 기반 생성 사운드 ,LED 바 조명, 프로젝션 매핑 바이오필리아 : 흙 한줌의 우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0

어드메 2020 8000. x 8000. x 6000. mm 메탈 지오데식 돔 구조물, 20.2채널 입체음향 시스템, DNA 기반 생성 음악, LED 무빙 조명

Scale, Scanning 성북예술창작터, 2020

Architecture of DMZ 2020 가변 크기 AR 어플리케이션, 생물 종 기반 이미지 마터, DNA 시반 생성 음악

Solo Exhibitions

신생; (2023)

1

신생어 : 말 2023

가변 크기

단채널 영상, 8채널 입체음향 시스템, 인공지능 생성 사운드, 원형 LED Matrix 디스플레이

2

신생공

2023

2160. x 2500. x 1750. mm

인공지능 생성 영상, 8채널 입체음향 시스템, 앰비언스 사운드, 모니터, 알루미늄 프로파일, 아크릴 수조, 물

3

텍스트 ㄱㄴㄷ

2023

410. x 200. x 380. mm

단채널 영상, 아날로그 TV

Hall1

2023.12.05 - 2023.12.11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

Solo Exhibitions 신생; (2023)

(전시 서문) 공간은 태초부터 존재했으며 언어는 미개함 속에서 탄생했다. 하나의 축을 보지 못하고 이동하지 못해 공간의 이면은 그림자로 남게 되었으며 물리 법칙을 이기지 못해 언어는 평면에 갇히고 말은 점에 머물렀다. 공간은 언어를 가두고 언어는 공간에 갇혀 세기의 단위를 넘어 사용되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공간의 경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며 공간은 확장의 시기를 맞이한다. 그동안의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空間)으로 여겨졌지만 COVID-19 이후 공간은 자아가 향유할 수 있는 인식적인 공간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새롭게 발견된 공간은 대부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VR,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의 공간이었다. 가상 공간에 입장한 사용자는 하나의 데이터 뭉치가 되어 손쉽게 수정되고 복사되고 삭제되었다. 이에 사용자는 물리적 공간이 제한한 범위를 넘어 경험할 수 있었으며 작가는 변화된

공간에 맞춰 넓어진 틀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언어에 주목해 새롭게 탄생할 공간과 언어를 예상하고 구현하는

프로젝트인 "신생"을 작업하기 시작했다.

י .

신생어 : 말

2023

가변 크기

단채널 영상, 8채널 입체음향 시스템, 인공지능 생성 사운드, 원형 LED Matrix 디스플레이

Solo Exhibitions



(전시 서문) 인간은 4차원의 시공간에 존재하며 3차원을 향유하고 2차원을 인식한다. 글이 탄생할 적에 우리는 중력을 비롯한 물리법칙을 극복할 수 없었고 눈은 평면만을 인식하기에 글은 평면에 갇혔다. 또한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었기에 말은 점에 머물러 뜻은 '말'속에만 존재하게 되었다. 수많은 기술의 등장과 발전에도 말과 글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공간이 향유되기 시작하며 기존의 제약을 벗어 던질 수 있게 되었다. 글은 더이상 평면에 갇히지 않아도 되며 뜻은 '말'에서 벗어나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말과 글은 해방되어 새로이 태어날 것이며 이는 마치 '신조어'처럼 하나의 작은 문화적 움직임으로 시작될 것이다. 스피커 속 전자석으로 진동하던 소리는 우리의 입으로 옮겨갈 것이고 모니터에 그려지던 픽셀은 우리의 손에 의해 쓰여질 것이다. 지금은 어린 아이의 낙서, 옹알이와 같은 것에 불과하지만 언어는 새로이 탈피하여 공간이 언어를 바꿨듯 문화를 비롯한 모든 것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2 신생공 2023

2160. x 2500. x 1750. mm

인공지능 생성 영상, 8채널 입체음향 시스템, 앰비언스 사운드, 모니터, 알루미늄 프로파일, 아크릴 수조, 물

Solo Exhibitions 신생; (2023)

(전시 서문) "신생"은 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할 새로운 공간과 언어를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현인류의 기술을 이용해 구현하는 프로젝트로 공간에 초점을 맞춘 '신생공'과 언어에 초점을 맞춘 '신생어'로 구성된다. 그 중 '신생어'는 '말', '글', '대화'라는 부제로 나뉘어 크게 3개의 연작으로 진행된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작업을 처음 발표하는 전시 <<신생;>>은 <신생공>, <신생어: 말>, <텍스트 ㄱㄴㄷ>, 총 3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글 : 이지원 / 둘)



3 텍스트 ㄱㄴㄷ 2023 410. x 200. x 380. mm 단채널 영상, 아날로그 TV <텍스트 ㄱㄴㄷ>은 <신생어 : 말> 작품 속 신생어 말소리를 생성함에 있어 사용된 텍스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이다.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된 100여개의 언어로 변환된 텍스트는 아날로그 TV를 통해 보여지며 <신생어 : 말>에서 체화되는 언어와 현인류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괴리를 느끼도록 한다.



< 신생어 : 말>은 현존하는 다양한 언어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학습시켜 새로운 발음체계를 확립하며 입체음향시스템을 통해 뜻이 말소리 이외의 요소에 담길 수 있도록 한 작품이다. 8채널 입체음향시스템을 통해 재생되는 새로운 언어의 말소리는 하나의 점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다양한 목소리로 발화된다. 원형 LED Matrix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재생되는 소리를 시각화하며 이는 새로운 언어의 시각적 구현을 목표로 하는 작업 <신생어 : 글>을 위한 실험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신생공>은 소리를 통해 기존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과 더불어 새로운 공간의 모습을 발견하는 작품이다. 별도로 학습된 인공지능을 통해 소리만으로 생성되는 공간은 온갖 공간의 모습을 이어 붙인 듯한 모습을 보이며 생성에 사용된 입체음향 사운드와 함께 12개의 모니터로 구성된 미디어월에 재생된다.



Solo Exhibitions 신생어 : 옹알이 (2023)

(전시 서문) 미래의 문화적 양상을 예측하고 구현하는 프로젝트 '신생'의 일환으로 제작된 <신생어 : 옹알이>는 새롭게 태어날 언어의 말을 아직 온전하지 않은 '옹알이'와 같은 형태로 전달한다. 언어는 별다른 기술적 기반이 없던 때에 탄생하여 현시대까지 그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유지되었다. 정체된 언어와 달리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여 점차 새로운 차원에 다가가는 경지에 이르렀다.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현실로 끌어 오기 위해선 언어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인류는 기술을 통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한다. 중력으로 인한 이동의 한계, 신체 기관으로 인한 인식의 한계, 결코 벗어날수 없는 시간의 한계. 인류는 수많은 한계를 기술로 극복했고 이는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한계가 하나씩 없어짐에 따라 갇혀있던 문화는 해방되었고 기술의 발전에 가속이 붙은 만큼 그에 따른 문화의 변화도 요동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요동 끝엔 언어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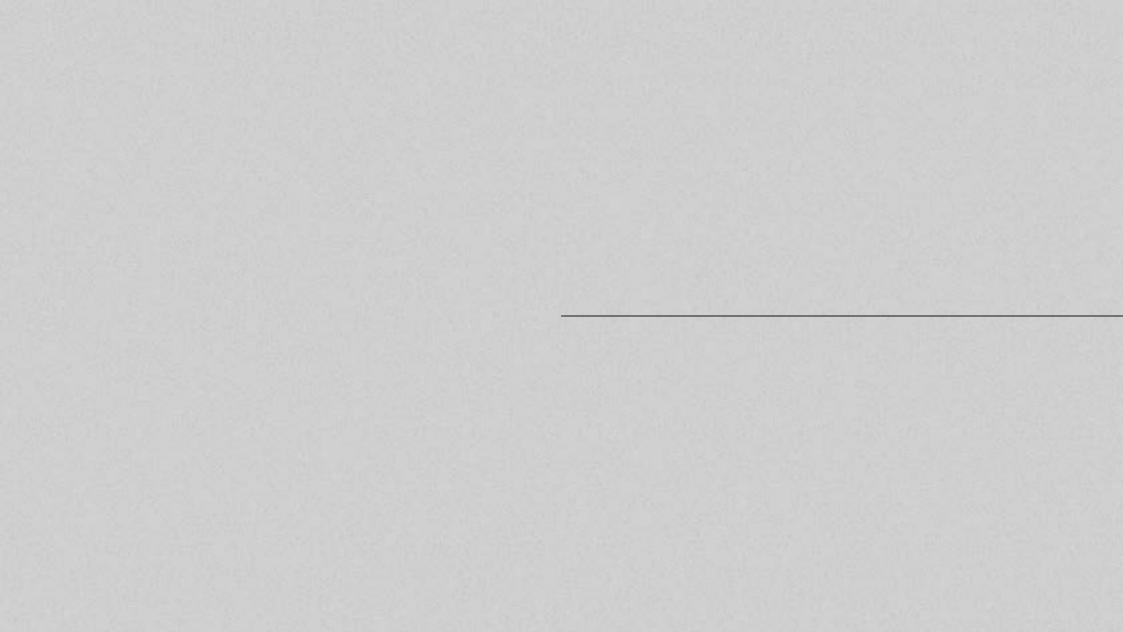
신생어 : 옹알이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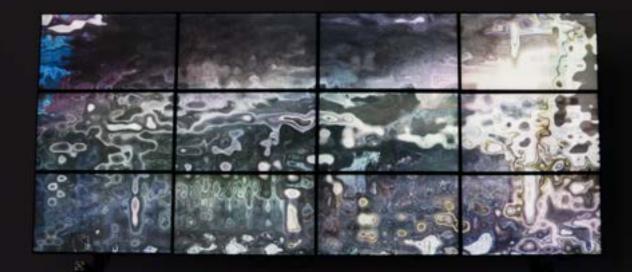
가변 크기

2채널 영상, 6채널 입체음향 시스템, 인공지능 생성 사운드, LED Matrix 디스플레이





Group Exhibitions



신생공 (리본시티 中, 2023)

신생공

2023, 이지원/둘

2160. x 1100. x 1920.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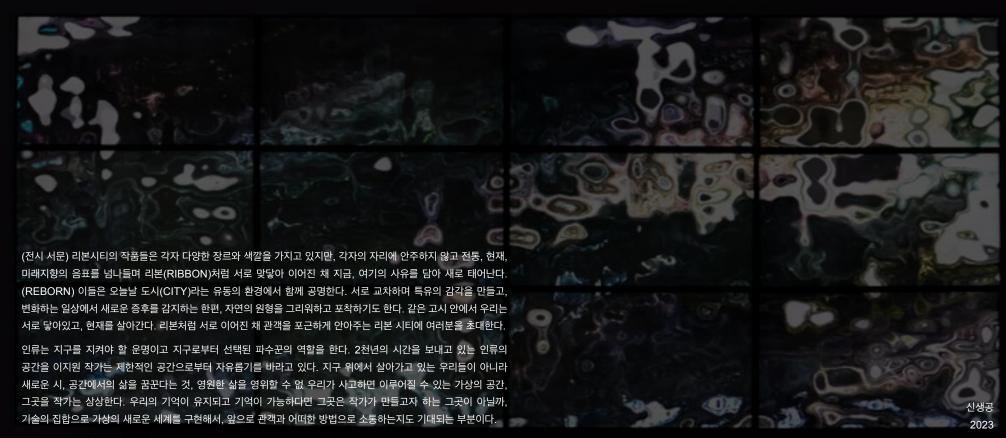
인공지능 생성 영상, 생성형 앰비언스 사운드, 모니터, 알루미늄 프로파일, 아크릴 수조, 물

복사골갤러리

2023.11.15 - 2023.11.25

부천문화재단 차세대전문예술활동지원 청년예술가S 실연회

Group Exhibitions 신생공 (리본시티 中, 2023)



(글 : 황희승)

2160. x 1100. x 1920. mm 인공지능 생성 영상, 생성형 앰비언스 사운드, 모니터, 알루미늄 프로파일, 아크릴 수조, 물

신생공 (리본시티 中, 2023)

(전시 리뷰) <신생공>은 소리라는 매체를 통해 공간을 바라봄으로써 시각이라는 하나의 감각으로 보지 못한 기존 공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공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입체음향 마이크를 통해 수집된 여러 공간의 소리와 이와 동시에 수집된 공간의 영상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통해 연결된다. 수집된 공간음을 재가공하여 새로이 탄생한 공간의 소리는 인공지능에 입력되어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공간의 모습은 12대의 모니터로 구성된 미디어월 통해 재생되며 입체음향 시스템을 통해 재가공된 앰비언스 사운드와 함께 관객들에게 전달된다.

인류는 지구를 지켜야 할 운명이고 지구로부터 선택된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 2천년의 시 간을 보내고 있는 인류의 공간을 이지원 작가는 제한적인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고 있다. 지구 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새로운 시, 공간에서의 삶을 꿈꾼다는 것, 영원한 삶을 영위 할 수 없는 우리가 사고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상의 공간, 그곳을 작가 는 상상한다. 우리의 기억이 유지되고 기억이 가능하다면 그곳은 작가가 만들고자 하는 그 곳이 아닐까, 기술의 집합으로 가상의 새로운 세계를 구현해서, 앞으로 관객과 어떠한 방법 으로 소통하는지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글 : 황희승)

Official Homepage
Exhibition Overview Video
Exhibition Archive









Group Exhibitions

어드메 (바이오필리아 : 흙 한줌의 우주 中, 2020)

(전시 설명) 바이오필리아(Biophilia, 생명 사랑),

다소 신성하게 들리기도 하는 이 단어는 환경 파괴로 인한 재해와 감염병의 대유행에 크게 위협받고 상처받은 지구 생명을 위한 여망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불리는 바이러스 대유행 시대(혹은 이후 시대)거 도래하며 우리는 비로소 생태계 하나의 종으로써 인류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구 생명과 관련한 담론들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수 십년 전부터 우리 주위를 햄돌던 환경보호 캠페인은 시민단체와 정부가 주도하는 일종의 프로파간다로 치부되었고, 뉴스에서 쏟아내는 빙하의 해빙과 이상 기후는 지척에서 격동하는 이 문명에 비하면 우리의 마음 한 켠에 막연하게 쌓여 있는 걱정거리 정도로만 여겨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슬로건으로만 여겨졌던 지구에 대한 외침들은 2020년 지금, 생존을 위한 행동강령이 되었습니다. 자연의 영역을 침범한 대가로 하루에도 수 십 만 명을 바이러스로 잃고 있는 인류가 이제서야 자연과 인간이 하나의 순환소리 안에 있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만하게도 인간과 자연계를 이분했던 인류는 우리 안에 내재된 바이오필리아를 깨우치고 지구 공생을 위한 윤리관과 태도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에서 균형으로, 고립된 인간에서 상호의존적인 인간으로, 파괴적 인류세에서의 창의적이고 평화로운 인류세로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흙 한 줌에 담겨 있는 생명다양성에 대한 작은 경외로부터 피어나는 생명사랑의 본성은 지구 전이의 에너지에 긍정적인 힘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Group Exhibitions

(기획글) 우리는 기술 환경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시대상에서 예술적 영감을 받기도 하고, 예술적 표현을 위한 적절한 도구로써 기술을 선택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스케일, 스캐닝》은 동시대 미디어 환경의 다양한 영역(scale)을 자유롭게 오가며 창작하고자, 지난 6개월간 진행한 예술가들의 관찰(scanning)과 실험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우리의 신체를 둘러싼 공간, 시간, 미디어, 휴먼 스케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의 아트콜라이더랩은 2020년도 <창작 지원>의 주제를 '휴먼 스케일(Human Scale)'로 제시하였다. 휴먼 스케일은 주로 건축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인간의 신체를 기준으로 공간이나 사물을 설계하는 물리적인 척도를 의미한다. 또한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영역의 크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미디어 테크놀로지 환경의 발달로, 인간은 기존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확장된 영역에 발을 디뎠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신체와 지각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기존의 물리적 영역의 휴먼 스케일 개념에서 나아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와 문화 생태계 변화, 신체와 지각에 대한 실험, 인간와 자연환경에 대한 관점의 전복, 그리고 그 속에서 유영하는 자아를 둘러싼 경험과 예술적 해석은 미디어를 통해 우리 주변을 스캐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동시대 환경에 대한 예술가의 관찰, 미디어 스캐닝

센서를 이용해 현실 공간 내 인지 가능한 범위를 스캐닝하고 개별의 기술에 맞게 재조직된 환경을 마주하는 일이나, 가상의 공간에 물리법칙과 관계없이 작동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일련의 일들은 공간에 대한 지각 구조의 변동을 경험하게 한다. 이는 휴먼스케일의 확장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야기했다. 사용자 디바이스의 크기와 이용 방식에 따라 내 손 안의 풍경으로 인식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특정 감각의 자극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구현되거나 투사 방식에 따라 거대한 몰입형 환경을 경험하기도 한다. 인간의 신체를 중심으로 발달한 스케일에 관한 개념 또한 그주체를 다변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특정 대상을 눈앞으로 가까이 당겨보기 위해 발전했던 기술은 관찰의 대상이었던 사물/객체를 말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전에 없던 관점으로 세상과 조우하게 한다. 본 전시에서는 곳곳에 놓인, 그러나 말하여지지 않은 대상을 포함하여 스캐닝의 범위/방식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휴먼 스케일을 여러 각도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글: 안성은, 이다영)

ARchitecture of DMZ (Scale, Scanning 中, 2020)



들리지 않게 들려주고 싶은 말 2023, 공간 형

김추수 개인전 / 프로그래밍 & 엔지니어링 참여

초평오행도 2023, 스페이스 엑스엑스 도로시 엠 윤 개인전 / 3D 프린팅 참여

클럽골든플라워 2020, 코스모40 권병준 개인전 / 부품 설계 및 조명 디자인 참여

게임과 예술: 환상의 전조 中 오랑 2021,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창작센터 홍진석 작가 참여 단체전 / 사운드 디자인 & 피지컬 컴퓨팅 참여

피로 물든 역사 전展 2020, 송원아트센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 전시회 / 사운드 디자인 및 조명 연동 제어 시스템 개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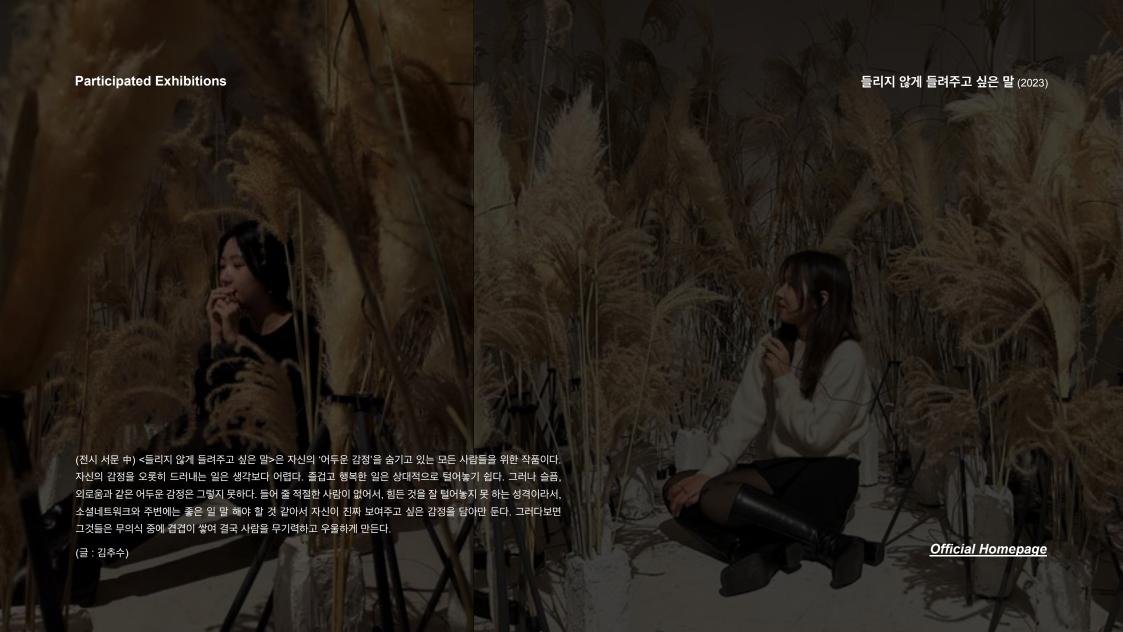
Xhibition 2010-2020 中 **풍경 그리고 풍경** 2020, 블루스퀘어NEMO 권병준 작가 참여 단체전 / 부품 설계 및 설치

입 닥치고 춤이나 춰 2020, 문화비축기지 T4 국립현대무용단, 권병준 / 부품 설계 및 디자인

「관내분실」 을 위한 로봇 변주곡 2020, 모스크바 국제 도서전 김초엽, 권병준 / 시그널 음악 작곡 및 오디오 에디팅

> 메타 퍼포먼스: 미래 극장 2020, 경기아트센터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권병준 / 사운드 디자인





초평오행도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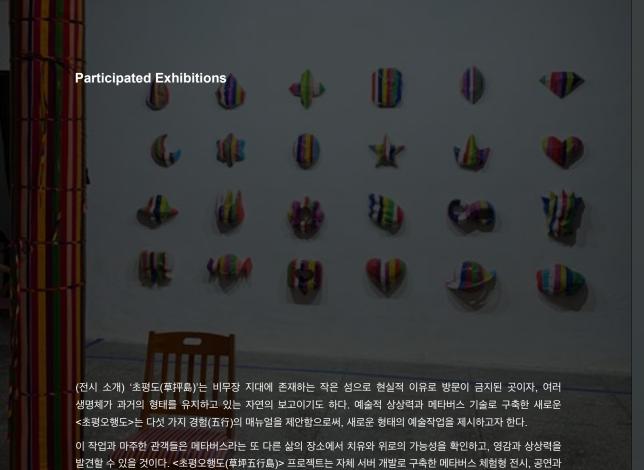
도로시 엠 윤 개인전 2023, VR 메타버스 체험형 작품 3D 프린팅

(왕) 초명오행도

스페이스 엑스엑스

2023.11.25 - 2023.11.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선정작



연동된 물리적 퍼포먼스로 감각을 확장시키고, '뉴테크놀로지+예술작업'이라는 궁극적 목<u>적을 이룩하면서, 나아가 실제</u> 삶(물리적 세계)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프로세스 작업을 지향한다. 과거의 세계관(샤머니즘과 오행론에 근거한

동양적 우주론)과 '현재 인류에게 새로운 세계를 제시하는 메타버스 기술'을 연계한 본 프로젝트는 우리 시대 예술에

주어진 새로운 임무를 사유하면서. 관객 개개인의 개성과 가치를 인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초평오행도 (2023)











Official Homepage Teaser Video **Archive Video**

클럽 골든 플라워 (2020)

권병준 개인전 2020, 로보틱스 퍼포먼스 부품 설계 및 조명 디자인

Club Golden Flower

코스모40

2020.12.23 - 2021.01.16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담; 가늘게 굽은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전시 소개) <<클럽 골든 플라워>>의 로봇들은 취객으로 등장하고, 벽을 마주하고 108배를 하며, 시위하고 구걸하다가 문득 군무를 춘다. 이 로봇들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도유망한 미래의 로봇이 아니라 슬픔, 쓸쓸함, 소외감, 사랑, 두려움, 환희 등과 같은 '정서'를 불러 일으킨다. 때문에 수공업적 방식으로 만들어낸 12개의 로봇들은 '기계'들의 '작동'이라기보다 특정한 시간을 '체화'하고 있는 '행위'로 느껴지며 작가의 노랫말처럼 '싸구려 인조인간'들의 무용한 움직임들에서 인간계의 작동방식, 이 세계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다시 질문하게 한다.

<<클럽 골든 플라워>>는 로봇들의 움직임에 더해 빛과 그림자, 소리의 증폭 등으로 비롯된 총체적 형태의 인스톨레이션이자 무대로 로봇들로부터 만들어진 원초적인 정서들을 공간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Official Homepage
Archive Video



오랑 (게임과 예술 : 환상의 전조 中,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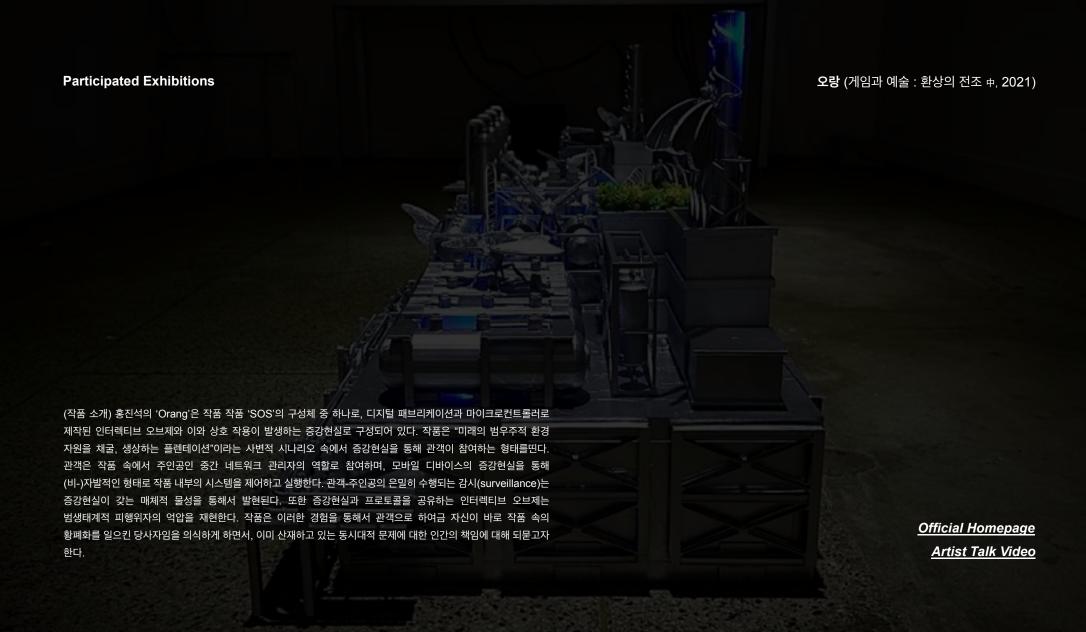
단체전 / 홍진석 작가 2021, AR앱 연동 인터렉티브 오브제 사운드 디자인 및 피지컬 컴퓨팅

> 대전시립미술관 대천창작센터 2021.06.08 - 2021.09.05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엔씨소프트 협업 과학예술 융복합전시

Official Homepage

Artist Talk Video



Participated Exhibitions 피로 물든 역사 전展

2020.16.21: - 11.8.

피로 물든 역사 전展 (2020)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 전시회 2020, 상업 전시

사운드 디자인 및 조명 연동 제어 시스템 개발

송원아트센터

2020.10.21 - 2020.11.18

Concept Video

VR Video

Participated Exhibitions 피로 물든 역사 전展 (2020)

(전시 설명) 수백 년 전, 조선 전역을 피로 물들였던 어둠의 역사. 지금껏 이 이야기는 세상에 밝혀지지 않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최근에 새롭게 발견된 유물들을 통해 조선 역사 뒤편에 감춰져있던 공포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극심한 기근, 역모의 소용돌이, 그리고 기이한 역병이 불러온 피비린내 나는 살육까지. 각 유물에는 조선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이제, 한 번도 밝혀진 적 없던 조선의 처절한 역사를 느껴볼 시간입니다. 눈앞에 펼쳐질 진실을 감당할 자신 있으신가요?

Concept Video
VR Video







「관내분실」 을 위한 로봇 변주곡 (모스크바 국제 도서전 中, 2020)

김초엽, 권병준 2020 시그널 음악 작곡, 오디오 에디팅

future

GUEST OF

HON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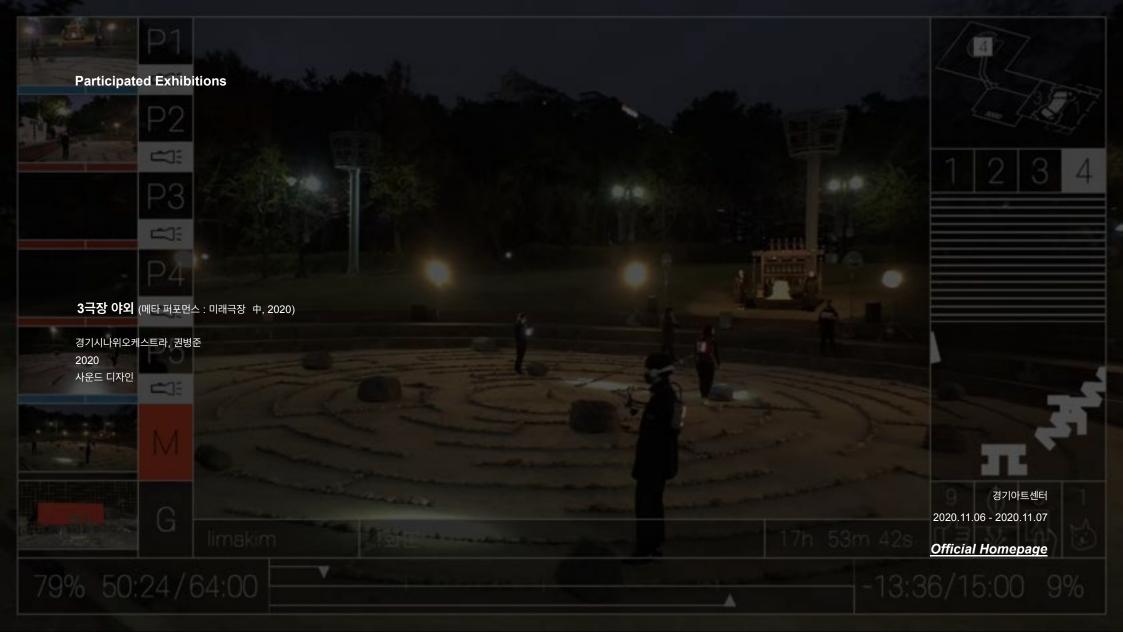
HONOR 2020

REPUBLIC

KOREA

모스크바 국제 도서전 2020

Performance Video



Homepage	https://dul-media.github.io/homepage/
e-mail	easyone.work@gmail.com
Instagram	@easy_dul
Mobile	